

明善錄의 內容에 觀한 考察

韓 周 錫*

I. 緒 論

明善錄은 菴菴 韓錫地(1709-1790?) 선생의 家傳本으로써 1940년 함흥에서 간행된 책이며 致知, 闡奧 辨繆의 3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明善이라는 것은 성품이 본래 선함을 밝힌 것으로 孟子의 性善說에 근거하여 저술되어 孔孟曾思의 원시유학을 근거로 反宋學的 태도와 反朱子學的 辯論을 선명하게 펼쳤다. 선생은 일생을 의지할 바 없이 고독하게 보냈으며 오직 성현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각성을 이루고 이치에 계합되어 스스로 학문의 독창적 경지를 개척했다. 극심한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질병에 시달린 생활로 계속된 불우한 처지였으며 자식 또한 三生三夭의 비운을 맞게 되고 그의 나이 68세에 삼십세 독자마저 잃고 75세에 부인마저 잃었으며 그해 겨울엔 질병으로 고생하니 전 생애의 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하늘이 사람에게 篤生과 明哲을 부여함에 스스로 篤哲의 實됨이 항상 우환함에 나타나게 되고 人之玉成이 반드시 어려움에 있고 편안함에 있지 않으며 天之明哲도 또한 안일에 있지 않고 艱屯에 있다하여 인생고난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의 나이 37세(1743)에 聖學의 본뜻을 깨달아 얻게되고 隨時隨錄한 책의 완성은 45년의 세월이 흐른 79세(1788)에 완성되었다.

體가 있으면 用이 있고 知가 있으면 行이 있다 하였고 曾思孟의 功德이 顏子보다 훌륭하다하여 저술의 유무로 등급을 평가하였음을 볼 때 그가 고난의 생애를 통해서도 聖學에 통달하고 明善錄을 저술케 됨은 스스로의 자부심과 성현에의 도달로 이끈 의미가 보인다.

이에 菴菴이 孔孟의 사상에 근거하여 저술한 明善錄을 致知의 1, 2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文獻資料

1. 夫作聖作賢이 專在於學矣라
2. 聖人之學은 至誠이오 賢人之學은 思誠也이니 不思不學則 是乃罔念者也이 품이 故로 曰 性雖本皆善이나 好學이 惟聖賢이니라
3. 聖賢之學이 其實은 學問而已라
4. 雖有誠明明誠之等而立其誠者이 學問也이오 啓其明者이 學問也이라

* 서울 韓周錫 韓醫院

5. 夫所謂 生知者는 無他라 生知性命之 至中至善과 學問之莫大莫切也이라 學問이 能明其道而弘之니 乃所謂明明德也라 雖聖人이나 非學問則無以大明其終始矣이니 謂聖人不學者는 未知之說也라 但與學知之學으로 明等而已니라
6. 生而知之者는 生知其明德之在我而自貽哲命하야 自昭明德故로 生而好學하시니 好學이 是安行也이라 其次是 學而後에 乃知明德之在我者이 與聖人無異而亦自貽哲命하야 至於利行則其好學也이 亦與生知로 不相遠矣라
7. 蓋明明之德은 人所同也 而自貽哲明好學者이 自古甚鮮하니 故로 曰性雖本皆善이나 好學이 惟聖賢이니라
8. 聖人이 好學故로 與天地合其德하시고 賢人이 好學故로 與聖人同其道하시니 誠心好學은 非知天知命之聖賢이면 不能也이라 其次是 篤學이요 其次是 勤學이니 勤篤焉攸久不息 而不畔則安知 不入於樂天知命之堂室乎아
9. 宋人이 以不誠之學으로 歸之氣稟하니 可知其已畔矣라
10. 所謂學云者는 必求放心尊德性而 不措學問於終食之間하야 以致盡心知性知天之謂也이니 不則雖讀萬卷이나 是乃不學而味道者也이라 故로 俗所謂 學은 與君子之實學으로 如霄壤也니라
11. 好則不須勤勉而自無其已矣니 所謂學者之好學은 不能然矣라
12. 生知는 好學而安行하시니 乃是一能之資이오 學知는 篤學而未知之前則 亦頗困勉이나 思敏善覺하야 易知而 利行하니 此는 十能之資이요 困知則勤學之工이 雖至百千而既知則 亦利行하니 利行者는 無不好學矣니 是乃中人以上上智之成功而登岸者也이니라.
13. 若曰 始生而知通下故 不須聞見者는 邪說也이니라
14. 學文淺深精粗이 有上中下故로 下學之不已則可 至於中上而 宋人則以爲氣稟清濁氣質不齊焉하니라
15. 噫라 道晦以來로 不學不思考이 滔滔하고 罔念不爲者이 滔滔이라 滔滔皆是를 委以性稟而 自安하니 自安者는 暴棄之下愚也이라 宋人이 導人於下愚하고 自以爲功而人이 亦以爲功하니 異哉라 不可說也이로다
16. 好學者는 必能謙虛容受矣니 不則是克伐怨欲을 猶行者也니라. 學은 不可不極力於博審慎明爲五者之工而以之明其愚 強其柔이니 不然而暗弱을 終不能變化則己私를 終未克者也이라
17. 夫子이 贊易曰 夢以養正이 聖功也이라하시고 又論語에 曰 里仁이 爲美라하시니라 習俗이 多蔽於私欲故로 幼穉見聞者이 被厚蔽則困知勉行하고 雖蔽而不厚則 可以學知利行이고 初不被蔽而自在其誠者 生知也이라 宋人이 以蔽之厚薄學之誠否로 爲氣稟하니라
18. 爲學而能不措有終者는 惟是忠信之人也이니 忠信故로 實矣오 實故로 不中廢自奮也이라
19. 博學聖賢書而讀誦精熟이 實爲問思辨行之基本이라
20. 博學者는 必先篤志니 篤志者는 志於行之篤也이라 於始學而已志於篤行故으로 其學이 博而不疎하야 自底審慎而明矣니 若徒博之務而不精熟하며 雖精熟於讀誦而志不篤於體行則同歸於不誠而無物也이니라
21. 學也者는 自是本分所不能己者也이라
22. 君子不器는 學之致也이니 學無限量하니 所以不器也이라 有限之學은 是所謂學其所學也이니라 問何謂學無限也오 曰 士學賢하고 賢學聖하고 聖學天이니 雖賢이나 不可限於賢이요 雖聖이나 不可限於聖이 此非無限邪아
23. 書에 曰 若藥이 不隈眩이면 闕疾이 不廖이리하니라
24. 氣有清濁氣質不齊之說이 出於致誠之躋於學問

而變敗爲蠹니 然而蠹 豈能自知其爲干哉아 名爲學問而不致曲은 是藥不瞑眩也여 不明善而欲誠身은 是跣不視地也이니 其繆이 一致而同歸已라 佛則跣不視地하고 宋人은 藥不瞑眩하니 所以卒至於陽斥佛 而陰宗佛也이니라

25. 篤信者는 無他라 篤信聖賢也오 好學者는 無他라 好學聖賢也라 故로 雖未聞道이나 而自無反害矣니 宋人이 不篤信 孔孟之訓故로 敗於老佛이니라
26. 人之成德이 不在資質이라 只在學問이오 學之明不明은 只在 誠不誠已니라
27. 讀書를 必精熟通解而 致之於行然後에 道與文이 可不出於二라
28. 余謂 讀書이 有四不放하니 心不放 眼不放 口不放 耳不放이니 四不放而後에 專一이요 專一而後에 方有所進益이니라
29. 學問은 求放心之綱也이요 四不放은 求放心之目也이니 如明強은 克復之 綱也이요 四勿은 克復之 目也이니라
30. 宋人이 不知性善道一而 又不信孔孟之訓故로 恣爲邪說而 無忌憚하니라
31. 誠則形矣오 形則著矣오 著則明矣오 明則動矣오 動則變矣오 變則化矣니 形著明矣여 道其明矣오 動變化矣여 道其行矣라
32. 初行은 知之本이요 眞知는 行之本이니 所以知行明強이 一體而皆本於誠也이니라
33. 形著明은 以知而言也이요 動變化는 以效而言也라
34. 致字이 已無不至之義也
35. 學者이 坐則危 立則孤 臥則傾 損則曲 拜則屈이 好하니 此亦時中之一遺也이니라
36. 苟志於道者는 不以夭壽而戚也이니라
37. 不知命故로 不畏天이요 不畏天故로 狎大人侮聖言이니 大人은 與天合德이요 聖言은 天命與一故로 畏則俱畏요 侮則俱侮이니 所以宋人

氣稟氣質等說이 俱是狎侮孔孟及天命也이니라 孟子所謂 說大人者는 以位而云也이니 有位之大人은 人莫不過於畏敬而避焉故로 特垂訓하사 以矯其偏弊也이 宋人이 反爲矜己之累而譏之하니 此이 無非不知命而狎大人侮聖言者也이니라

38. 不受夫子攻異端之訓故로 老莊佛之以無爲本者를 尊崇慾崇하야 弁而壓之於夫子 太極訓之首라
39. 侮孔孟之訓而反孔孟之道者이 莫甚於宋人이 但外籍務功하야 以圖名利하니라
40. 夫子曰 終身行善이라도 一言則敗라하시니 宋人之謂也이라 宋人이 蓋自以爲終身行善者而無極一言이 反敗性命而陷無底抗也이니라
41. 無極眞之說이 不勝可駭可笑이라 天地間에 安有無理之眞哉아 佛者이 以空空無大天으로 爲見性하고 宋人이 以無極無內外로 爲見道하니 其意一也라 吾이 故로 曰 猶未能改頭換面이 腹心이 如舊也이니라
42. 夫至誠至明而無己無息者이 天道也이라 人之生也에 受此道而心自活하야 仁義禮智之德이 隨時隨處而感通發越하니 彼其之子이 惡此而爲無工夫이나 然이나 有生則 無是理 而宋人이 服此虛妄之說을 右於夫子之訓하니라
43. 有人이 從事主靜하야 不慮不爲者이 曰吾能曷辱하야 念絕世務而養得本原이 爲大라 하야늘 余이 曰 子所養得於本原者이 何오 曰 虛靜無爲也이니라 曰此이 宋人 所謂無極無爲主靜者也이로다
44. 子이 胡不遷死하야 尤大其養本原也오 太極이 在人爲性命則無極者는 無性命也이니 無性命之術이 莫善於死也이니라
45. 天地設位어든 而易이 行於其中이니 天地位矣라 非無極也故로 有理有物하고 易이 行矣라 非主靜也故로 有化有生하니 無極者는 無天地者也이오 主靜者는 無易道者也이니라

46. 夫氣則理氣也이오 情則性情也며 理則天理也요 性則人性也이며 又性則理也이요 情則氣也이며 又性理는 體也이요 情氣는 用也而宋人所謂天命之性是 無氣之性而質之性是 無理之性也이요 道心之情은 無氣之情而人心之情은 無性之情也이라 或理有而氣無하고 氣有而理無하며 或性有而情無하고 情有而性無하며 或體有而用無하고 用有而體無하며 又氣則有清濁之殊하고 情則有善惡之幾하며 又必竟以無爲本하니 衰周以後에 邪說이 雖多而未有若茲之甚者也이라 其意以爲天命之性是 純理而無氣故로 純善이 無惡하고 氣質之性是 氣爲主而理或乘之故로 清濁이 挾雜이라 原其萬端之繆이 皆出於以無極爲本 理氣爲二也이니 可怪而亦可哀也이로다
47. 宋人之意이 以無極으로 爲純理無氣而純善無惡故로 天命之性이 全是無極眞也이요 太極則氣爲主而無極之眞이 乘之而已故로 氣質之性이 清濁이 挾雜也이라 以此之見으로 自以爲極精密而少夫子太極之訓하고 據孟子性善之訓하니라
48. 宋人이 以性命之形氣로 爲不干於性命하고 以性情之人欲으로 爲不干於性情하니 其意以理氣로 分二而爲無極太極故也이니라
49. 朱子이 解中庸之道曰 其大이 無外하고 其小이 無內라하니 本自無極之說也이라 吾所謂全亂以佛宗也이니라
50. 夫天地之理이 必有內外體用則無內無外者는 彼所謂無極이 是已라 吾이 故로 曰 無極者는 無天地者也이라 無內無體는 無理也이오 無外無用은 無物也이니 無理無物而 有天地乎아
51. 理者는 道之原이요 道者는 理之泓이니 所以內外一理오 體用이 一道이라 以理行其道하고 以道實其理요 理者는 至精至密하고 道者는 至大至廣이라
52. 有志於學者이 不但遠聲色 避小人 防嗜欲 革舊習而已라 當汲汲焉求明師 取賢友而追隨之니라
53. 夫大學之道이 在明明德하고 中庸之道이 天命率性이요 孟子之道이 盡心知性則德行之三子이 亦宜與知어니와 至於大學之道이 在新民하고 中庸之道이 在修教하고 孟子之道이 在憂世則非大化能權而德與天合之大人이라
54. 夫子言道體及稱顏子이 雖微言이나 然而苟能密察而融通則盡躍如矣라 不能鉤闡其微者는 必倣視不信하고 低看道體及聖域而 莫知其躍如也이니 所以宋人이 治信老佛之虛無而孔孟之訓則倣視低看也이니라
55. 誠之在心曰 忠이오 在性情曰信이라니 聖人은 心性이 渾然至誠而已오 學者는 自其忠信而弘之하여 以至明誠也이니라
56. 天所命於人者 誠也 故로 成於性者 誠也 有於心者 誠也而 不受命而自失其誠者 豈氣稟然也苟用其稟受固有之誠於每事則 人皆可以爲 堯舜丁寧無疑也
57. 禮是仁之著이요 法是義之制而因其時世하여 禮有損益하고 法有輕重하니 以其所向者이 時中故也이니라
58. 小不忍者이 婦人之仁也이요 踰大閑者이 豪俠之義也이요 滯而碎者이 繁苛之禮也이요 詐而逆者이 穿鑿之智也이니 此이 皆仁義禮智之賊也이라 故로 仁은 以全爲尙이요 義는 以精爲尙이요 禮는 以通爲尙이요 智는 以順爲尙이니라
59. 言怒在己而不遷於物也이라 犯而不校는 犯在物而不校이 自量也이요 橫逆自反이 亦然矣니 如鑑之照物에 明在鑑而物在外也이라 己有明德故로 知處物之宜而止於中正也이니 既知所止故로 有定而不遷耳라 若怒不在己則是是 墮物而役於物者也이니 豈惟怒哉아 七情이 無一得其正矣라 宋人在物不在己之說이 無理莫甚하니 可知其所由來矣라 怒者는 性情之感發也이니 怒不在己則性情이 不在己也이라 四端七情이 無不

在外物而心則空空而已오 性則寂滅而已니 此이 正與以遊無極復歸無極者流也이며 又與義外也 非內者類也이로다

60. 知人心道心之一體而精一之이 此이 知其一道之行也이오 精一而執兩端用其中이 此이 行其一一道之知也이니라
61. 爲學之道는 四不放 五不措 明其愚 強其柔 事四勿 日三省也이니 明其愚는 在精思이요 強其柔는 在力學이나 然이나 必相須而成也이니라
62. 宋人이 徒言天無心 聖無慾이라하여 陰實其無極之眞 寂滅之合自然故로 言此以矯之耳라 皇天之心은 全是令이요 聖人之心은 全是教이요 賢人之心은 全是學이니 學聖教者이 賢人也이요 教天命者이 聖人也이시니라
63. 嗚呼이라 群聖이 同一心也이오 同一法天之心也而 孔孟이 尤有大焉이라 知群聖之心 則 可以知孔孟之心이오 知孔孟之心則 可以知天之心이오 知天之心則 可以知人性之皆善而 不惑於 淸濁稟殊之 邪說矣리라
64. 有明必向하며 有旨必甘은 此乃 良知良能而 私欲이 蔽之則有明而 不知明하고 有旨而 不知旨故로 向暗而求明하고 却旨而求甘하니 不亦迂邪아
65. 夫一體而純善者이 理氣也이니 事物之出於理氣而初焉有不善이며 物亦然矣는 況人性乎아 故로 中庸에 不日明善惡而 只日明善이라하니 以其本無惡故也이니라
66. 居敬工夫이 在於明善이오 集義工夫이 亦在於明善而 明善之工則 學問也라 學問則已居敬也이며 集義也이니 愚必明이라야 乃能直內오 柔必強이라야 乃能方外니 未有不明而能直內하며 不强而 能方外也이니 明強이 俱在學問이니라
67. 夫動靜者 太極心性之用也 其體則無動靜矣 惟活之一字 眞得體用兼總之妙(活字不可謂之動

不可謂之靜)

1.2.3.4 聖賢이 學問에 의해 이뤄지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삼는다.

誠을 세우고 明을 밝힌다.
孟子的 性善說을 본받았다.

5. 태어날 때 性命의 至中至善과 學問의 莫大莫切을 알리고
13. 聖人은 배우지 않는다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말이고 학문하지 않으면 終始를 크게 밝히지 못하지만 다만 生知는 學知의 學과는 차이가 있다.
6. 태어나면서 아는자는 태어나면서 明德이 나에 있음을 알아 스스로 哲命을 貽하고 明德을 밝힌고로 태어나면서부터 好學하시니 好學이 安行이라, 그 다음은 배운 후에 곧 明德이 나에 있음을 알은자이니 성인과 더불어 차이가 없으나 스스로 哲命을 貽하여 利行에 이르니 그 好學함이 生知와 서로 멀지 않다
7. 대개 明明의 德은 사람이 함께 하는 바이나 스스로 哲命을 貽하고 好學者가 自故로 드므니 고로 性이 비록 본래 모두 善하나 好學이 오직 聖賢이니라
8. 聖人이 好學인 고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시고, 賢人이 好學인 고로 성인과 더불어 그 도를 함께 하시니 誠心好學은 知天知命의 聖賢이 아니면 能하지 못하여 그 다음은 篤學이요 그 다음은 勤學이니 勤篤이 오래도록 쉬지않고 배반하지 않은 즉 편안히 알아 樂天知命의 堂室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9. 宋人이 不誠之學으로 氣稟에 되돌리니 그 이미 배반됨을 알 수 있다.
10. 學이라는 것은 반드시 求放心 尊德性하여 식사를 마치는 순간에도 학문을 버리지 아니하

며 盡心하여 知性, 知天에 이름을 일으킴이니
그렇지 않은 즉 비록 만권을 읽어도 이것은
배우지 않은 것과 같이 도에 어둡게 되는 고
로 俗에 이르길 學은 君子的 實學과 하늘땅
차이라 한다.

11. 好인즉 힘씀이 없이(억지로 함이 없이) 스스
로 그만두지 못함이니 이른바 학자의 好學은
그렇지 못함이라.
12. 生知는 好學이 安行하시니 곧 一能의 資이요
學知는 十能의 資이요 困知는 百千- OO好學
安行 利行 → 知行的 연결 - 中人以上 上智
13. 나면서 通하고 알아서 見聞하지 않는다는 것
은 邪說이다.
14. 學問의 淺深, 精粗가 上中下가 있는 고로 下
學이 그치지 않고 노력하면 中上에 이를 수
있는데 宋人은 氣稟淸濁 氣質不齊焉하니라
15. (朱子비판)안타깝다 道晦 이래로 不思不學자
가 滔滔하고 罔念 不爲자가 滔滔라 滔滔함이
모두 이와 같음을 성품으로 돌리고 스스로
안주하니 스스로 안주하는 자는 暴棄의 下愚
라 宋人이 사람들을 下愚에 이끌고 스스로
공이 있다 여기고 사람 또한 공이 있다 여기
니 꾀이하구나 가히 말할 수 없다.
16. 好學者는 반드시 謙虛하게 받아들이니 그렇지
않으면 克伐怨欲을 오히려 행한 자이다.
學은 五者 - 明其愚 強其柔

愚 底 - 狂狷 之過不及

柔 底 - 不能力學而 深造自得

→ 明強이라야 中(擇中, 執中)

↔ 善이 未至善이 된다

17. 성인도 배워야 되는 이유 → 夢以養正
18. 學이 不誠하여 道에 어두우면 깊은 산에 들어
감에 구름안개가 막힘이요 처음 길에 어두운
밤을 만남이요.

學이 誠하여 明強이면 맑은 날에 하늘을 보
는 것같고 높은 산에 올라 큰 바다를 보는
것 같다

19. 널리 읽고 외음이 精熟함이 있어야 된다(널리
배우지 않으면 고루하고 정속치 못하면 疎澁
하여)
20. 博學 → 篤志 → 志於行之篤야
- 21.22.23. 學問의 확장 → 끝이 없음 → 致曲
24. 篤信 好學 聖賢을 하지 않아 → 老佛에 敗함
25. (孔孟之 訓을 不篤信)
26. 사람이 德을 이룸은 資質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學問함에 있고 學問의 밝고 밝지 못함은
단지 誠과 不誠에 있을 따름이다.
27. 道與文 일치강조 - 知行的 일치
- 28.29. 讀書德目, 爲己之學은 반드시 意를 誠하나
意는 억지로 誠이 되지 않는다.
30. 반드시 格致하고 그 性의 본래 善함을 밝힌
후에 意가 誠해 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즉
거짓됨이라 無原之水 無根之木이 된다.
至中하고 至正한 것이 性命의 一理이고 천하
의 萬理가 이것을 쫓아나오니 聖人은 爲物不
貳가 體가 되고 物物不測이 用이 됨이 妙함
을 生知하게 되며 賢人은 學知하는데 不知者
는 氣稟이 淸濁의 殊가 있다하며 知覺하게
됨이 善惡의 幾라 하며 이것은 言性命而 一
混於私欲者也이니라.
31. 唯敎이면 無類라 하시니 倣子曰 唯誠이면 無
類이니라.
34. 宋人이 이른 氣質과 夫子의 資質의 차이는 氣
는 理氣也이니 天也이요 資는 資於人也이라
學之愚不肖는 學問에 달려있다.

立誠立命이 一意인데 學이 明善해야 되며
立其誠은 立其命이고 盡其誠은 곧 性을 다
하는 것이니 誠者는 天之道也이다. 天은 道

로써 사람에게 命하고 사람은 道로 天에 順하니 天人이 始終 함께 하는 것이 誠이며 天인의 道는 誠外 다른 것이 없으나 스스로 誠 밖의 氣를 짓는 것은 人이라.

36. 가령 30년에 비로소 깨달음이 있으나 어찌 늦은 것을 한탄할 것인가 단지 불행하게 단명하여 中도에서 前功이 虛勞됨을 걱정하는 것이다. 큰 길을 가다 밤이 되어 中도에서 잠자는 것이 길을 헤매는 사람이 가시밭길에서 헤매고 진흙탕에서 浮沈하는 것과는 다르다.

36.37. 宋人이 氣質氣品の 설로써 孔孟及天命을 狎侮했다.

38. 夫子의 太極의 訓을 누름 → 老莊佛 無를 本으로

39. 孟子性善道一之訓

夫子 - 繼善成善及吾道一貫

顏曾思孟- 次聖인데 大人이라 할 수 있는 이유 生知 學知의 차이有 大而化之를 聖이니 大人이라 - 安行 利行 → 知와 成功이 같다. 四者가 生知는 一也이나 成功은 顏子가 短命으로 未及한다.

40. 무릇 허무가 진실에서 反함이 마치 死生の 다름과 같고 無極인 즉 無의 極이니 마치 죽고 썩어 다 소멸된 것이라 妙合의 眞이 어디에 있음이오

진실에서 眞을 구하지 않고 진실의 誠인 즉 無爲라하고 眞을 無極 虛無에서 구함이 가한가 宋人이 老佛의 道를 攻하여 미묘의 법과 극락의 경계를 얻음이 無의 一字이라 일생동안 온밀히 공부함이 그 실은 모두 無를 숭상함이니 그 이른바 靜을 主한다함은 無極을 주함이오 그 이른바 外物을 不接하고 內容을 不萌은 無極盡의 본원을 함양함이오 그 이른바 遏 與拔塞等說이 모두 無의 그에 힘쓸 뿐이니 夫子가 이르길 忠신토록 行善하더라도

一言則敗라 하시니 宋人을 일음이라.

43. 무릇 至誠至明이 쉽이 없는 것이 天道也라 사람이 生함에 이 도를 받아 마음이 스스로 활발해야 仁義禮智의 덕이 隨隅隨處로 感通되어 發越하나 저 사람들은 이것을 미워하고 無工夫를 하나 생이 있으되 이치가 없고 宋人이 이 虛妄된 말을 믿고 夫子의 가르침에 우하노라.

44. 太極이 사람에 있어 性命이 된 즉 無極은 無性命이라.

45. 無極이 아니므로 理와 物이 있음이오 易이 행함이며 主靜이 아니므로 化生한다 無極은 天地가 없음이요 主靜은 易道가 없음이라

46.47. 무릇 氣는 理氣也이며 情은 性情이니 理는 즉 天理이요 性은 人性이며 또한 性은 理요 情은 氣이며 또 性理는 體요 情氣는 用이니 宋人이 이른바 天命의 性은 無氣之性이고 氣質之性은 無理之性이요 道心之情은 無氣之情이고 人心之情은 無性之情이라 或理는 있고 氣는 없으며 用은 있고 體는 없으며 氣는 濇濁의 다름이 있고 情은 善惡의 氣가 있으며 또 필경엔 無로써 本을 삼으니 周가 쇠한 이후에 邪說이 비록 많으나 이같이 심함이 있지 않다 그 뜻이 天命의 性은 純理而無氣故로 純善이 無惡하고 氣質之性은 그 萬端의 그릇됨에 근본함이 모두 無極을 本하고 理氣가 들됨에서 나왔으니 괴이하고 또한 슬픈일이다 理氣 體用 性情의 合.

48.49. 무릇 人性은 天理인고로 人情의 常은 天理의 正也이오 人情의 같음은 天理의 公이라 孟子 이르길 親親은 仁이오 敬長은 義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천하에 달함이라하시니 親親 敬長이 인정의 항상으로 같음이오, 聲色臭味가 또한 항상되어 같음이고 오직 그 過不及을 살필뿐이라 過不及이 없으면 人心이 스스로 天命의 仁義이고 中正하지 못하면 道心이 또한

사사로운 지혜로 치우치게 한다.

50. 안이 한갓 안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안이요
밖이 한갓 밖이 아니고 안으로부터 밖이요 내
외가 둘이 아니고 일체의 내외이니 안이 없으
면 밖이 없고 밖이 없으면 안이 없다 일체가
없으면 내외가 없고 無極은 일체가 없음이고
내외가 없음이다.

52. 雲霧 中 自濕하며 芝蘭 中 自香也이라.

53. 孟子를 칭찬함-知德을 兼備

顔之, 利行은 같으나 성공에서 差等이 있음
(孟子-曾思-顔子)

顔子は 도를 듣고 垂教에 미치지 못했고 曾
思는 垂教하되 異端을 판별하고 邪說을 피했
음이 孟子와 같지 못한 공덕의 차이가 있다.
知行을 겸비코자 늙으면 반드시 가르침에 힘
쓰고 천하에 범되고자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데 이런 자들이 曾思孟子라.

54. 孟子가 盡心知性知天으로 存心養性事天함은
은거하여 그 뜻을 구함이오 냇발을 내리고
칠 편의 책을 지은 것은 이를 행하고 그 도
를 통달함이니 이른바 體가 있으면 반드시
用이 있음이라

未言難明은 夫子의 가르침에 많고 細行必矜
은 曾子의 言行에서 밝다.

55. 性이 마음에 있어서는 忠이오 性情에 있어서
는 信이다.

56. 하늘이 사람에게 명한 것이 誠이고로 性에 이
루어진 것이 誠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 誠이니
命을 받지 않고 誠을 스스로 잃은 것은 어찌
氣品이 그러한가 眞實로 그 부여 받은 誠을
매사에 쓴 즉 사람 모두가 요순이 될 수 있음
은 정녕 의심할 바 없다 하늘이 사람에게 命
한 바는 誠인 고로 性에서 이루어진 것이 誠
也다 心에 있는 것이 誠이되.

57. 禮는 어짐의 드러남이요 法은 의로움의 규제이

니 그 때로 인하여 禮에 損益이 있고 法에 輕重
이 있으니 그 숭상하는 바가 때에 중합이니라.

62. 仁은 全을 숭상

義는 精을 숭상

禮는 通을 숭상

智는 順을 숭상한다.

63. 오호라 群聖이 同一心이오 同一法天之心인데
孔孟子 더욱 큼이 있다. 群聖의 마음을 알게
된 즉 孔孟의 마음을 알게 되고 孔孟의 마음
을 알게된 즉 하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늘의 마음을 알게 된 즉 人性이 모두 善함
을 알게 되어 淸濁稟受의 사된 말에 의혹됨
이 없다.

64. 밝으면 향하게 되고 뜻이 있으면 달가워 하는
것이 良知 良能인데 邪慾이 가린 즉 밝음이
있으되 밝음을 알지 못하고 뜻이 있으되 뜻을
버리고 단 것을 구하니 또한 더욱 멀지 않는
가?

65. 무릇 일체가 되고 純善한 것은 理氣이니 사물
이 理氣에서 나와 처음에 어찌 不善이 있을
것이며 物이 또한 그러한데 하물며 人性인저?
고로 中庸에 善惡을 明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
고 단지 明善을 말했으니 그 본래 惡이 없는
까답이다.

66. 居敬工夫는 明善에 있고 集義 工夫도 또한 明
善에 있으니 明善의 工인즉 학문이라 學問인
즉 이미 居敬이며 集義이니 愚는 반드시 明이
라야 內를 直할 수 있고 柔는 반드시 強이라
야 外를 方할 수 있으니 不明하고서 直內할
수 없으며 不強하고서 方外 할 수 없으니 明
強이 모두 學問에 있느니라.

III. 總括 및 考察

1) 菴菴의 生涯

菴菴은 1709년에 태어나 1790년인 82세로 생을 마감했다. 勳忍錄의 기록에 의하면 질병과 가난, 고독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였다 한다.

평생 몸이 약해서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었으며 반년곡식도 쌓아놓고 살아 본 적이 없으며 한 마리 소나 말이나 하인 하나 거느려 본 적이 없는 극심한 가난속에 살아 왔다고 한다.

위로 스승이 없고 中으로 친구가 없으며 아래로 무리마저 없게 된 고독한 생활속에 인고와 노력으로 성현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스스로 독자적 비판에 이른 사람으로 그의 학문적 근원이 孟子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을 얻고 中庸과 大學의 뜻에 융통된 후에는 豁然大悟하여 그간 理氣 性命의 說에서 宋人의 분분한 의론에 수십년간 부지런히 공부했으나 더욱 혼미해졌다 한탄하며 이로써 宋人을 비판하기에 이른다 1735년(27세)엔 司馬試에 합격했으나 大科도 치르지 못하였으며 1743년(34세)엔 정신이 열리게 되고 그후 3년이 지난 다음 本末에 어둡지 않았다 하여 開悟의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후 隨時隨錄하여 45년후인 1788년(79세)에 明善錄의 저술을 이뤘는데 늦게 깨달음을 한탄말고 短命하여 前功이 虛勞됨을 걱정하라 하듯 본인도 曾思孟의 功德을 따라 聖賢의 대열에 쫓고자 하는 生活哲學을 대변해 주며 특히 孟子의 덕을 겸비하고 異端을 판별하며 邪說을 피한 공덕을 본받아 宋學을 비판케 되는 영향을 입게 된 듯 하다.

2) 孟子의 思想

孟子는 墨子의 學과 道家의 일파인 楊朱墨翟의 說이 유행하던 시대에 나와 孔子의 學을 계승하

고 爲我主義로 無君의 思想이 되는 楊朱와 兼愛로 無父의 思想이 되는 墨翟을 排擊했다.

孔子는 仁을 道로 삼고 忠恕의 방법을 가르쳤으며 孟子는 進一步하여 忠恕의 法을 정초하기 위해 性善說을 제창하였다.

孟子는 孔子의 天命說을 바꿔 性善說을 규정지었는데 命을 性과 命으로 구분하여 인간의 도덕심을 性이라하고 客觀的 方面 즉 운명의 의미는 命이라 하였고 人性은 선하다 주장했다. 孟子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心과 耳目의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하고 心의 官은 안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작용을 하고 耳目의 官은 外物의 자극을 받아 감각하는 작용을 한다했다.

心의 본성을 良知와 良能으로 구분하는데 良知는 善惡을 판단하고 良能은 惡을 버리고 善을 따르려 하는 것으로 인간의 心 자체는 善이나 外物의 욕망에 이끌려 질 때 비로소 惡이 생긴다 하였다. 四端의 확충으로 仁義禮智의 四德이 이뤄지고 우리 마음에 구비된 德이므로 직각하여 실행하는 良知 良能에 있기에 人性은 善하다 主張했다. 心은 善한 것이고 惡은 外物에 의해 일어나므로 인간의 수양에 1) 적극적으로 良知 良能의 힘을 발휘시키도록 하는 일과 2) 소극적으로 耳目의 官을 心의 命에 따르도록 힘쓰는 일이 있는데 실천으로 存心과 求放心이 필요하다. 存心은 스스로 반성하여 자신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고 求放心은 과욕으로 外物의 욕망에 어둡게 되지 않기 위해 욕심을 적게 하여 본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3) 至誠의 道

誠이란 정성되어 허망함이 없는 天理의 본질이다. 春秋時代 이전에도 <誠>자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助詞나 接續詞로 쓰여졌을 뿐 사람의 品德을 나타내는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大學에서

는 誠意라 하여 八條目的 하나가 되었는데 이른바 자기의 생각을 성실하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中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誠을 논한 면이 될 텐데 성실함을 天道라 했고 성실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人道라 하여 人道를 다하여 天道에 이르러야 됨을 강조했다.²⁾

성실함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아직 성실함이 되지 못했으나 허망함이 없도록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함을 일컫으며 이 성실코자 함은 仁을 이루고 知를 이루며 자기를 이룩하게 하며 만물을 이룩하게 하는 길이다.

中庸이 주장하는 誠은 天道와 人道를 관통한다.

사람이 성실함을 이룰 수 있다면 천지에 참여하여 만물을 化育하니 군자는 성실함을 존중한다.³⁾

이러한 中庸의 사상에 영향을 입어 성현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학문에 있고 성현의 즐거움은 학문에 있으며(자료 1,3) 好學에 의해 성품의 본래 선함을 밝히게 되어 安行 利行에 이르게 된다(자료6), 이와 같이 노력에 의하여 성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스스로 노력하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선천적 품부에 의하여 도달하지 못한다 안주하고 不誠의 學을 하는 宋人을 비판하게 된다.(자료9)

사람에게는 生知 學知와 困知의 차별이 있으며(자료12), 生知는 처음부터 알고 지혜가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우지 않는다 하는 것은 邪說(자료13)이라 하여, 生知도 好學하고 安行함을 제시하고 배운 후에 明德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 利行에 이르게 되면 生知와 공덕이 같음을 제시한다(자료6). 好學이라 함은 반드시 겸허하게 수용함을 말하는데 好는 억지로 함이 없이 스스로 그만 두지 못함이고(자료11), 學이라 함은 放心을 구하고 德性을 높임에 있고(자료10), 博學 審問 明變 慎思 篤行에 힘써 愚 柔를 明強케하여 暗弱을 변

화시켜야 邪慾에 빠지지 않는다(자료16) 하는데 학문에 깊고 알음과 정밀하고 조잡함이 있어 上中下의 등급이 있지만 노력하면 中上에 이를 수 있었다(자료14) 宋人이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지 않아 罔念不爲가 범람하고 성품으로 돌리고 노력하지 않으며 스스로 下愚라 하며 포기하고 氣稟 滯濁과 氣質이 다르다 함을 비판했다(자료14).

學問에 의해 德을 이루고 학문의 밝고 밝지 못함은 단지 誠과 不誠에 있으며(자료26) 獨行에 의해 道와 文이 일치된다(자료27). 처음 행함은 知의 근본이고 眞知는 行의 근본이니 이른바 知行 明強이 일체가 되고 모두 誠에 근본하게 된다(자료32)하여 학문을 통해 성현을 이루게 되고 학문은 誠을 이룸에 있으며 獨行으로 이뤄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 宋人이 이른 氣質과 夫子의 資質의 차이는 氣는 理氣이니 天이요 資는 資於人이니 夫子의 資質이라 함은 誠을 다하여 人道로써 天에 순함을 주장하여 宋人의 氣質滯濁과 氣稟不齊를 비판한 근거로 삼는다.

4) 無極說 및 主靜說의 批判

堯菴은 孔孟 太極思想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려 하였기에 宋人이 받은 老莊佛의 無極 無爲 主靜 사상에 대한 영향을 비판적으로 보았다(자료38).

宋시대에 道學이 유행하고 南宋의 朱子에 이르러 道學이 대성되었는데 堯 舜 禹 湯 文 武 周公의 道統으로부터 孔子 曾子 子思 孟子的 사상을 받아 道學으로 연결된다. 道學의 발생은 太極圖說의 周子(敦頤)와 氣分殊說의 張載(橫渠)에서 비롯되어 程明道(伊川)으로 계승되는데 이때 大學 中庸이 중시되어 論語 孟子와 병행되고 格物致知를 학문의 착수처로 삼고 明善과 誠身을 요점으로 삼은 朱熹에 이르러 大成되게 된다.

周子は 太極을 내세우며 太極圖說에서는 中正 仁義를 내세워 中和를 달성하면 天地가 제자리에 서게 되고 만물이 생성된다 하였고 생성조화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慾을 들어 靜을 주로 하며 人極을 세운다. 宋學적인 장점이 되는 것은 우주현상과 도덕을 하나의 생성조화라는 원리로 일관시키고 있는 점이며 周子の 學은 易과 中庸을 골자로 하기는 하나 道家思想과 佛家思想의 영향을 받았다.4)

張橫渠는 太虛를 주장하고 程伊川의 理一分殊說과 관련이 있는데 만물의 생성을 氣의 聚散의 차이로 생긴다 설명하고 천지간 만물을 동일한 氣化가 생성한다 하였다.

程明道는 陰陽消長에 의해 만물이 화생하는 것을 天理 一理로 보고 천리에 따르고자 함은 人道로써 邪心을 버리고 大功함에 의해 따른다고 했고, 程伊川은 事理一致와 體庸一源으로 墨翟의 兼愛와 楊朱의 利己가 되는 理一分殊說을 주장했다.

理性和 氣質로 구분하고 理와 氣는 본래 일체이고 氣는 理의 작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氣質의 性은 涵養과 進學에 의해 偏奇를 교정하면 理性으로 돌아갈 수 있다.

朱子は 우주론에 있어서 程子の 철학으로 朱子の 太極圖說을 해석하여 일가를 이루고 人性論에 있어서는 그의 철학을 가지고 中庸을 해석하여 宇宙와 人性을 일관하는 원리를 誠이라 단정하고, 實踐道德을 말하는데 있어서는 大學을 해석하여 格物窮理를 역설했다. 朱子の 우주관은 理一原論으로 理氣二原의 對立은 形而下에서 유전하는 현상으로 보았으며 程子が 理一分殊說에서 본체인 一理가 나뉘어져 사상의 차별을 낳는다고 했는데 반해 朱子は 사상의 차별은 形氣의 차이로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는 모두 같다고 하여 이에 있어 절대적으로 一如라 주장했다.

芸菴은 위에 언급한 宋 道學 中 周子が 道家와

佛家の 영향을 받아 <無極이면서 太極이라>함과, <太極은 본래 無極이다>, <靜을 주장한다> 주장함에 대해 宋人은 聖賢을 篤信 好學하지 않으며(자료25) 性善을 알지 못하고 邪說에 빠져 꺼리는 바가 없으며(자료30) 夫子의 이단을 공격하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 老莊佛의 無로써 근본을 삼는다 하여 無極一語를 말하게 되면 아무리 善을 행하더라도 性命에 위배된다(자료40)하여 절대적 가르침의 기준을 夫子의 太極訓에 의거한다. 太極은 사람에게 있어 性命이 된 즉 無極이라 함은 性命이 없으니 죽은것보다 나을 바 없다(자료45) 혹평했으며 天地가 자리를 잡으매 易이 그 가운데 유행하니 天地가 위치하고 無極이 아니기에 理와 物이 있게 되고 易이 그 가운데 유행하니 天地가 위치하고 無極이 아니기에 理와 物이 있게 되고 易이 유행하니 主靜이 아닌고로 化生이 있게 된다.

無極은 天地가 없음이요 主靜은 易道가 없음이라(자료45)하여 無極과 主靜을 극명하게 비판했는데 다분히 독선적이고 形而下學的인 현상만을 고집한 면이 보인다. 그후 動靜의 개념을 太極心性의 用이라 하였고 體는 動靜이 없다 하여 活字로 體用의 動靜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표현한다(자료67).

또한 理氣 體用 性情의 合一을 주장하여, 무릇 氣는 理氣이며 情은 性情이니 理는 즉 天理요 情은 氣이며 또 性理는 體이며 情氣는 用이니 宋人이 이른바 天命의 性無氣之性이고 氣質之性은 無理之性이요 道心之情은 無氣之情이고 人心之情은 無性之情이라, 혹은 理는 있으되 氣는 없으며 用은 있으되 體는 없으며 氣는 淸濁의 다름이 있고, 情은 善惡의 氣가 있으며, 결국 無로써 根本을 삼으니 邪說됨이 가장 심하고 天命의 性이 純理而 無氣故로 純善이 無惡하고, 氣質之性은 그 萬端의 그릇됨에 근본함이 모두 無極을 본하고 理氣가 돌림에서 나왔다(자료46,47) 批判했다.

明善錄의 致知篇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1. 明善錄은 원시유학에 근거하여 특히 孟子의 性善說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2. 至誠 思誠을 바탕으로 學問을 하여 聖賢에 도달함을 주장하였고 氣稟의 清濁과 氣質의 不齊로 無爲하는 宋人을 批判했다.
3. 宋學이 道, 佛에 영향을 받은 無極說과 主靜說을 批判하고 太極說과 活性論을 主張했다.
4. 理氣 二原을 批判하고 理氣性情의 合一을 主張했다.

- 1) 吾이 於理氣 若性明之說에 爲坐宋人之紛云無爲라 數十餘年之間에 探索之愈勤而昏惑之 滋甚矣 러니 何幸一朝에 分曉 鄒夫子之訓 而融通乎中 庸大學之
- 2) 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逸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 固執 之也
- 3) 誠者는 物之終始 不誠 無物 是故 君子 誠之爲貴
- 4) 無極이면서 太極이다, 太極은 본래 無極이다, 靜을 主한다.

參考文獻

1. 中庸, 서울, 明文堂, 1978.
2. 韓錫地, 明善錄, 民族文化社, 서울, 1986.(影印本)
3. 武內義雄(李東熙譯), 中國思想社, 서울, 麗江出版社, 1987.